

“예스 평창” 동계 스포츠 새 지평 연다

2018 올림픽 개최지 장단점

평창 저변 확대, 뮌헨·안시 경험 풍부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투표가 6일 오후 실시된다. 이번 경쟁에서 강원도 평창과 독일 뮌헨이 쌍두마차로 살얼음판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프랑스 안시는 다소 처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세 후보도시는 투표 직전까지 장점을

을 부각하고 단점 노출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분의 평창 = 평창의 최대 강점은 동계 스포츠를 변방인 아시아로 확산시키는 메시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평창의 슬로건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동계 체육 저개발국에 새로운 꿈을 전한다는 명분이 강력하다. 일각에서는 평창이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을 근소한 득표 차로 각각 캐나다 밴쿠버와 러시아 소치에 내줬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동성표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기장과 숙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창은 동계 종목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은 메이저 대

회를 치른 경험이 뮌헨과 안시에 비해 적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전통의 뮌헨 = 뮌헨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으론 겨울 스포츠의 오랜 전통으로 형성된 특색 있는 저변을 들 수 있다. 뮌헨은 무수한 동계 스타들을 배출했고 그에 걸맞은 경기장과 동계 체육을 잘 알고 즐길 수 있는 팬층이 두텁다. 동계올림픽 유치 시 경기장이 열릴 예정인 뮌헨과 가르미슈는 올 시즌에만 12차례 월드컵과 세 차례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는 등 국제 대회를 개최할 경험이 풍부하다. 그러나 뮌헨은 동계 올림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기장 부지를 최근해야 모두 확보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럽 지역에 속하는 소치에서 열리는 것도 뮌헨에는 불리한 요소로 지적된다. <환경 좋은 안시 = 프랑스 알프스 지방인 안시는 동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과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다. 그만큼 뮌헨에 못지않은 겨울 스포츠의 역사와 전통, 튼튼한 저변을 자랑한다. 이미 잘 갖춰진 동계 종목의 시설도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시는 경기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 팬들이 옮겨다니면서 여러 종목을 관람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게 큰 단점으로 거론된다.



PT대표단 자신만만 5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미디어호텔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PT대표단이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김연아, 조양호 평창유치위 위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김진선 특임대사. /연합뉴스

KIA 마운드 더 강해진다

전역 앞둔 상무 임준혁 쾌투·한기주 1군 복귀 압박

가을 추세를 꿈꾸는 KIA가 풍성한 마운드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4일 무등야구장에서는 KIA와 상무의 퓨처스리그 야간 경기가 열렸다. 치열한 순위싸움으로 흥이 오른 1군 대결은 아니었지만 군산 원정에 나선 조병현 감독이 중계로 상황을 지켜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친정팀을 상대로 상무 선발로 나선 임준혁의 투구 때문이었다. 임준혁은 과감한 피칭과 묵직한 직구를 가진 미완의 대기였지만 상무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눈에 띄게 실력이 자랐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다승왕과 방어율왕을 차지했고 광주주 야시안게임 예비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몸이 안 좋아 2주 가량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임준혁은 오랜만의

선발등판에서도 6이닝 6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커브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변화구의 움직임이 좋아졌고 직구 최고 구속도 150km가 나오는 등 깔끔한 피칭이었다. 타자들을 상대하는 노련함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 감독은 '볼 끝이 좋다'며 전화로 현장 스태프에게 스피드를 확인하는 등 우승 프로젝트를 위한 마운드 카드를 체크했다. 임준혁이 9월 21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KIA가 10월 가을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바로 마운드 투입도 가능하다. 김진우에 이어 한기주의 1군 등장도 압박하면서 조 감독은 카드를 하나 더 손에 쥐게 됐다. 한기주는 지난 1일 한화와의 퓨처스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등판

해 5이닝을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4번째 등판을 마쳤다. 선발 진입을 노리고 있는 한기주는 이날 직구와 슬라이더, 투심 등 63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은 152km를 찍었다. 한기주는 주중 상무와의 경기에 출전해 1군 복귀를 위한 최종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재활군에 있는 곽정철·김희걸 그리고 2군에서 불을 다듬고 있는 박성호·조태수·이상화 등도 상황에 따라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카드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KIA에게도 '진짜' 고민은 있다. 확실한 마무리 투수의 부재가 대권 탈환을 노리는 KIA의 또 다른 고민이다. 2009년 KIA는 손영민·곽정철·유동훈으로 이어지는 SKY라인으로 빛문을 틀어막으며 우승을 가져왔다. 하지만 올 시즌 SKY라인은



임준혁 킬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한 모습이다. 풍요속의 빈곤에 빠진 KIA가 어떻게 마운드의 퍼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2011년 가을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8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비교		
경기 일정: 올림픽 2018.2.9~2.25(16일간) / 패럴림픽 2018.3.9~3.18(10일간)		
<p>개폐막식 장소 알펜시아 스키점프장 (수용인원 6만석)</p> <p>PyeongChang 평창 (한국)</p> <p>인구(2010년 기준) · 4만5천명</p> <p>비전* 매우 콤팩트한 컨셉 다중 교통망으로 짧은 이동시간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 기대 강력한 국가, 지역, 지방정부의 지지</p> <p>경기장 건설계획* 경기장 클러스터 계획 매우 콤팩트 대회장소 제공토지 확보 완료 레이아웃에 선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됨 제한적 교통 접근으로 관객수용 능력 어려움 평균 적설량 문제 안됨</p> <p>환경* 날씨 상대 만족</p> <p>국민/지역 지지도* 87% / 92%</p> <p>경기장 시설 현황 총 13개 경기장(기존 7개, 신규 계획 6개) 연습장 14개</p> <p>선수촌 수용 규모 알펜시아: 3,500명 코스탈: 2,300명 패럴림픽: 2,500명(평창 1개 운영) 전 시설 영구 시설</p> <p>예산 15억3천1백만 달러</p> <p>안전인력 총 24,000명 경찰: 14,000명 의료 및 소방: 2,000명 국정원: 1,000명 민간 안전인력: 2,000명 자원봉사자: 5,000명</p> <p>총 숙박객실 수 10만72실 (보통 객실 수 2만5천542실)</p>	<p>뮌헨 올림픽 스타디움 (7만석)</p> <p>München 뮌헨 (독일)</p> <p>128만명</p> <p>도시 지속가능성과 잘 연계 이동거리 매우 짧음 풍부한 스포츠대회 개최 경험</p> <p>설상 경기장 콤팩트 토지 미확보 노르딕 경기장의 눈 깊어 낮음</p> <p>평균 기온 조건 만족</p> <p>56% / 53%</p> <p>15개 경기장(기존 8개, 신규 계획 7개) 연습장 19개</p> <p>뮌헨아이스파크: 3,500명 가르미슈 파텐키르헨: 2,500명 *웨니세 슬라이딩센터 호텔 550명</p> <p>총 12,915명 경찰: 1,450명 소방: 3,880명 의료: 805명 민간안전인력: 3,780명 자원봉사자: 3,000명</p> <p>6만9천243실 (2만1천400실)</p>	<p>안시 중심위치 극장 (4만2천석)</p> <p>Annecy 안시 (프랑스)</p> <p>4만8천명</p> <p>게임플랜이 도시계획과 잘 부합 이동시간 짧음 올림픽중 확산교육 활용에 대한 계획 부족</p> <p>필요부지 일부 미확보 경기장 배치 계획에 선수 출신 의견 잘 반영</p> <p>종합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계획</p> <p>62% / 63%</p> <p>총 13개 경기장(기존 6개, 신규 계획 7개) 연습장 14개</p> <p>안시: 3,400명(영구시설: 2500) 사모디: 1,400명</p> <p>총 14,800명 경찰: 9,400명 구조대: 1,300명 폭발물 제거 전문요원: 70명 항공기 승무원: 6명 시설보안요원: 2,250명 자원봉사자: 850명</p> <p>3만41실(2만1천521실)</p>

KIA 김선빈 타구 맞아 중상

장기간 결장 불가피

KIA 타이거즈의 유격수 김선빈이 경기도중 코뼈와 잇몸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김선빈은 5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수비도중 상대 4번타자 알드리지의 강습타구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동군산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김선빈은 CT 촬영결과 코뼈와 오른쪽 상악골(잇몸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김선빈은 전대 병원으로 후송돼 정밀검진을 받은 뒤 결과가 따라서 정확한 치료와 재활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골절로 인해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0-0이던 2회초 문제가 발생했다. 넥센의 선두타자 알드리지가 때린 로페즈의 타구가 김선빈을 향해 총알갈



5일 군산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넥센의 경기. KIA 유격수 김선빈이 2회초 넥센 알드리지의 타구에 얼굴을 맞아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이 날아갔다. 김선빈이 글러브를 내밀었으나 공은 그대로 왼쪽 코와 광대뼈 사이를 정통으로 강타당했다. 김선빈은 피를 많이 흘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의료진이 달려가 응급처치를 한 뒤 응급차를 이용해 동군산 병원으로 이동했다.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선빈은 깔끔한 수비와 함께

매서운 타격으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김선빈은 모두 71경기에 출전해 0.294의 타율로 46득점, 38타점, 18도루를 기록했다. 4할이 가까운 출루율로 톱타자 이용규와 최강의 테이블세터진을 구축하며 KIA 상승세를 이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p>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페백식 / 페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p>	<p>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p>
--	--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